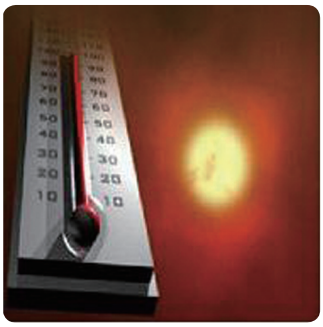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6월호

특집기사

생명을 위협하는 여름철 폭염



2008년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가릿 찬(Margaret Chan)은 '기후변화로부터 건강 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더 이상 환경 또는 개발 이슈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의 보호 증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가 단합해 이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러 기후변화의 영향들은 오늘날 인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대규모로 직면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구의 기온은 과거 100년간 0.6℃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0년 동안 1.4℃에서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구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다.

지구 온난화가 일으킨 기후 변화 현상 중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폭염이다. 우리 몸은 주위 환경과의 지속적인 열 교환을 통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즉 인체와 외부 환경 사이에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등의 기전을 통해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위에 대한 인체의 순응은 5~6일이 지나면 가능하나 완전한 순응은 5~6년이 걸린다. 그러나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건강 장애가 일어난다. 무더위는 식욕을 낮추고, 혈관팽창으로 인한 혈액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며, 땀을 많이 흘리게 한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생리적 영향과 반응을 살펴보면, 세포 손상으로 효소의 변성 또는 비활성화, 세포막 파괴로 단백질 합성 장애, 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부담 증가 등이 있고, 주요증상으로는 탈진,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열사병 등에 걸리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최고기온이 나타난 1~2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열지수로 인한 사망은 최고 열지수 2~4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온의 경우 평균값의 변화만이 아니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높은 날의 횟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 차

01 특집기사
생명을 위협하는 여름철 폭염

03 바이오뱅크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Korea Biobank Project)의 개요

04 팀소개
에이즈 · 결핵관리팀

06 여기는 검역소
전남동부권 전염병 지킴이 새둥지를 틀다 국립여수검역소

08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만들기
예방접종 홍보사업

10 칭찬은 우리도 춤추게 한다
빨강머리 앤을 닮은 도서도우미 오진희

11 우리는 지금...
보건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

12 주요행사
문화와 교육이 숨쉬는 『2008년 심뇌혈관 교육 연극』 전국투어
노벨상 수상 과학자 "Dr. Robert huber" 초청 강연
2008년도 인플루엔자 지역간담회 개최
2008년 제3차 손상정책포럼 개최

조은희
에이즈결핵관리팀
cho6404@mohw.go.kr

폭염 피해 외국사례는 1988년 중국 난징도시에서 17일간 35℃이상의 최고 기온이었던 기간에 열사병환자가 급증하고 사망도 증가하였다.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1주일 이상의 폭염으로 726명이 사망을 했으며 1987년 7월 아테네에서는 폭염으로 2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3년 여름 유럽을 강타했던 폭염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7 만명이 숨졌다.

폭염 피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후반부터 폭염 발생의 기간과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경우 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했던 1994년을 제외하면 폭염 지속 일수가 평균 5일을 넘지 않았다. 1994년 여름, 서울지역의 7~8월 평균 일일 최고 기온은 32.2℃로 1993년의 27.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더욱이 35℃를 넘는 날이 15일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에서는 199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88명이 더 사망했다. 그해 서울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800명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96년 이후에는 여름철 폭염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계속 늘고 있으며 연도별 초과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폭염이 계속되면 심장질환 · 당뇨병 · 고혈압 · 호흡기질환 · 사고 · 경련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다. 고온으로 인한 심장병환자의 사망은 36℃에서 1℃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28.4% 증가(Diaz 등, 2002)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열지수 37℃ 이상에서 사망자가 급증(1℃증가할 때 마다 사망률이 3.0% 증가, 폭염이 7일이상 지속시 9%이상 사망이 증가, 김소연, 2004)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주된 사망의 원인이 호흡기계, 내분비계, 순환기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폭염기간의 주요사인

사인분류	ICD-10 code	관찰수	기대수	초과 사망수(95% 신뢰구간)
호흡기계 질환	J00-J98	197	137	60(43.8)*
내분비, 영양, 대사질환	E00-E88	158	107	46(43.0)
-진성당뇨병	E10-E14	133	92	41(44.6)
순환기계 질환	I00-I99	1,142	875	267(30.5)
-뇌혈관질환	I60-I-69	688	471	217(46.1)
-기타 심장질환	I26-I51	266	201	65(32.3)

*통계적으로 유의(p<0.05) / 자료 : 김소연,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혹서현상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2004

폭염은 65세 이상 연령 군이 민감하며,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폭염과 사망의 관련 사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망이 폭염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2006년 5월 발표된 기상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32℃이상에서는 1℃ 상승할 때마다 고령자의 사망수가 9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서울 지역의 경우 폭염기간의 사망자수는 평년보다 75%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폭염 현상은 농촌지역보다 열섬현상 등으로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열보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시 열섬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와 이로 인해 도시 근교나 시골보다 도시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설사나 호흡기 감염,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자들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 현상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에서 2000년까지 강수와 기온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기상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연평균기온이 2060년에는 6℃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폭염과 같은 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적 수준의 예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폭염이 발생할 경우 폭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경고, 보호정책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대처 요령과 응급실 이용 안내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바이오뱅크

주민석
보건의료생물자원관리 T/F
msc202@cdc.go.kr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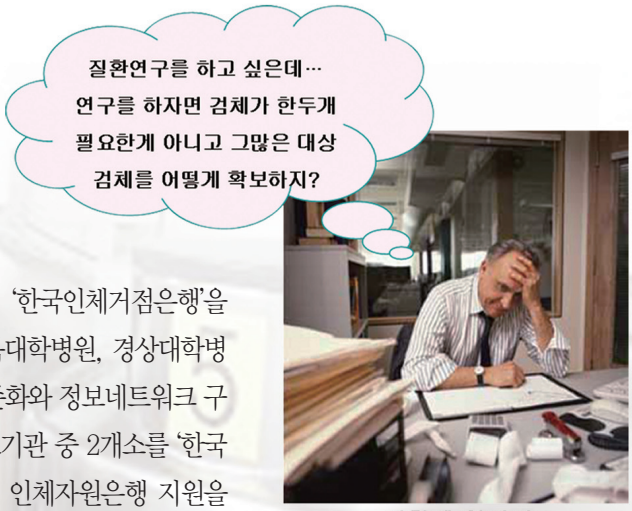


외래의사 혹은 병리의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08년 4월말 필수 연구소재인 인체자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제공을 위한 'Korea Biobank Project'를 기획하고 출범한 바 있다. 이 사업은 A 대학병원 김모교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연구자에게는 귀중한 인체자원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B 대학 박모교수와 같은 처지의 연구자에게는 국내에 설치된 다수의 인체자원은행의 검체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자는 계획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구개발 추세는 다분야 기술융합이라는 독특한 패러다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생명공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의학계, 생명과학계, 정보통신학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익숙해진지 오래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협업이라는 요구는 크나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의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협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종의 체계를 마련하는 일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 · 관리하는 혈액(혈청), 조직, 세포, DNA 및 병원성미생물 등의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및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인 예측 · 맞춤의료, 혁신적 신약개발 등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학계 이외의
모든 생명공학관련연구자

이와 더불어 자원수집 · 보관 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인체거점은행'을 충남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 등 6개 권역에 선정 · 신설하였다. 한편, 기존 수집자원의 표준화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도권을 포함하여 유전자은행으로 허가를 득한 의료기관 중 2개소를 '한국인체자원협력은행'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인체자원은행 지원을 확대한다.

생명과학 연구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원확보 및 공유 이외에도 연구자 협업의 공간 구성에 일환으로 자원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e-Science' 사업을 생명의과학 분야에 도입할 계획에 있다. 국내외 활용 가능한 생명과학연구 컨텐츠를 한대 묶고, 방대한 유전정보 분석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Cyber Space)상에서 슈퍼컴퓨터 및 첨단고가장비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가규모의 연구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 기본 목표이다.

앞으로 'Korea Biobank Project'는 향후 5년간 건강인 코호트자원 30만명, 질환군별 자원 20만명 등 인체자원 50만명 및 표준병원체자원 1만5천주를 확보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자에게 필수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e-Science'의 도입은 대용량의 생명공학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맞춤의료, 혁신적 신약개발 등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팀소개

에이즈·결핵관리팀

" 에이즈 · 결핵관리팀은 에이즈, 성병, 결핵, 한센병 등의 예방 · 관리 업무와 각 질병에 대한 예방홍보, 교육, 상담 등 전문성 기반을 통한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동적인 조직이다 "



〈에이즈결핵관리팀의 BIG PICTURE〉

❖ 국제적인 보건 ISSUE

에이즈, 성병, 결핵, 한센병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협해온 질병이며, 특히 에이즈 · 결핵은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강 ISSUE 중 하나이다. 또한 각 질병들은 사회적 편견 · 차별로 인한 가정의 해체, 고아의 발생 등 인류에게 커다란 손실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TV, 온라인, 인쇄광고 등 Mass Media Communication의 실행과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생활보호 등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네트워크 기반을 통한 질병관리 강화

에이즈 · 결핵관리팀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도전하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의 관련 NGO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체계적인 협력으로 업무를 수행 · 관리 · 지원하며, 네트워크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부서이다.

※관련 NGO단체 및 유관기관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레드리본센터,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빛복지협회, 샘물호스피스선교회, 가톨릭대학교 한센병 연구소 등

❖ 주요 MISSION

• 에이즈 · 성병 · 결핵 · 한센병에 관한

1.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시행
2. 질병유행예측을 위한 감시시스템 운영
3.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4.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사업 수행
5. 국제기술협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주요정책사업

•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이즈 · 성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편견 · 차별을 해소하고자 청소년, 동성애자, 외국인, 군인,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보건의료인, 언론인, 노인, 감염인 등 대상세분화를 통한 홍보 ·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쉼터, 호스피스, 의료기관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시 · 도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에이즈 검사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ISSUE의 질병인만큼 매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이윤재
에이즈 · 결핵관리팀
sahala007@hanmail.net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결핵관리사업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라는 VISION을 갖고, 2030년까지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100만명당 10명 미만 달성을 목표로 「결핵퇴치 2030 REVISION」PLAN을 수립하여 다양한 결핵퇴치사업과 결핵 신고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조사 · 연구 · 검진 등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결핵환자의 조기치료 성공을 높이고 있으며, WHO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련 국제연수를 실시하고 국제결핵연구센터를 통하여 다제내성 치료제의 개발 등 세계 결핵퇴치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결핵퇴치 2030 REVISION〉PLAN 세부과제

- BCG백신의 생산개선과 접종률 유지
- 접촉자조사 관리 강화
- 결핵진단체계 개선
- 결핵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운영(TB도우미사업 : PPM)
-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관리 강화
- 결핵퇴치 운동본부 발족, 운영
-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 BCG백신의 생산시설 현대화
- 접촉자조사 등록관리 체계 구축
-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관리
- 국가결핵관리사업 법령 정비
- 국가결핵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 한센병 관리사업

한센병 환자를 조기발견 · 치료함으로써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고 질환에 의한 장애예방 및 재발방지로 우리나라 한센병을 퇴치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교육 · 홍보를 강화하여 편견 · 차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센사업대상자들 중 신체적 결함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장이 초래되는 이들에게 기능과 외관을 회복시켜 재활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고령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 등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밝은 조직이 국민의 건강미래를 밝게 한다는 소명아래...





❖ 에이즈 · 결핵관리팀의 MAN POWER

우리팀은 보건, 행정, 간호, 전산, 홍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국가 에이즈, 성병, 결핵, 한센병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는 검역소

전남동부권 전염병 지킴이 새둥지를 틀다 국립여수검역소

여수시 동산동(구 세무서 부지) 122-2번지에 위치한 국립여수검역소(소장 김복순)는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 및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유관기관장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준공식을 갖고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신축 청사는 사업비 1,86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에 완공되었다.

2,240㎡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중앙실험실에 PCR등 첨단 검사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전염병예방 교육 및 각종 세미나를 위한 교육장을 갖추어, 콜레라 등 검역 전염병 및 사스·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고 국외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이봉화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재출현 전염병 및 신종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과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 기회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신청사의 준공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용과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 업무 추진을 새롭게 다짐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국립여수검역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검역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해외전염병 발생정보를 안내하고, 국가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검역소를 홍보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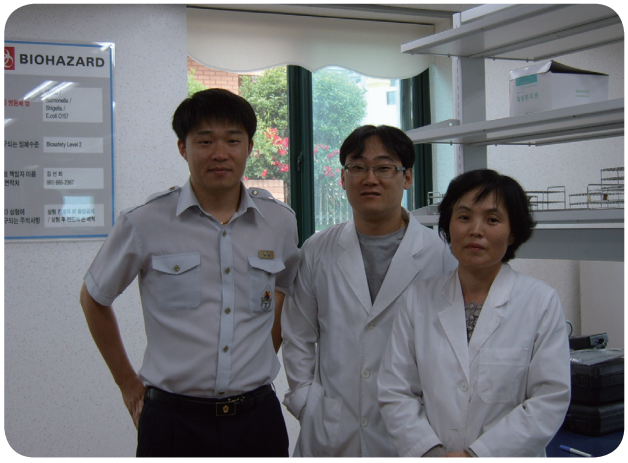


국립여수검역소는 1947년 3월 미군정 여수해항검역소로

지세영
국립여수검역소
otough1@hanmail.net

발족하여 1966년 1월 국립여수검역소로 개칭되었고, 1987년 10월 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1월 현재의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로 조직 개편되었다.

여수검역소의 주 임무는 전염병의 국내유입차단을 위해 오염지역에서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에 입항하는 선박 및 적재화물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및 적재물품 조사, 선원 승객에 대한 발열감시를 통하여 질병감염확인, 가검물 채취를 통하여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증상 의심시 격리 시키고 있으며, 검역구역 및 취약지역의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소독 및 식품접객업소등 보건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하는 선원 · 여행객들에게 콜레라 · 황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오염지역 입항 선박 가검물 채취하여 세균검사를 하고 있으며, 병원성 비브리오균, 쉬겔라균, 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결과, 선박 및 대리점에 통보 후 다음 입항시 보건위생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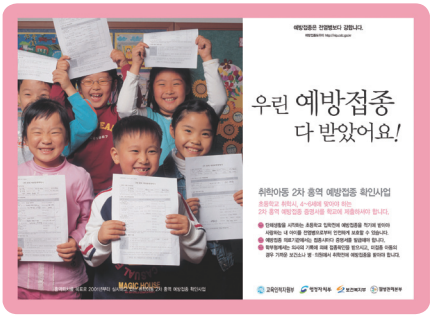
전염병사전예방 홍보활동으로 대형전광판, 거리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유관기관인 선사대리점, 수입식품 관련 업체에 대해 해외 감염병발생 정보도 실시간 (SMS) 제공하고 있다.

여수검역소 2층에 위치한 현대식 검사실은 *여수항 및 광양항에 대한 해양환경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분포도 조사를 위하여* PCR(유전자증폭기) test 검사 및 해수의 기초조사(온도, 염도, 탁도, pH) 병행 실시로 비브리오균과의 연중 상관관계 파악하여 *국민건강 확보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팀과 연계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만들기

예방접종 홍보사업



과거에는 두창이나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예방접종이 보편화 되면서 전염병 환자의 발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얼마 전 정조임금의 일대기를 다룬 TV 드라마 '이산'에서 왕세자에 책봉 된지 5년이 채 안된 문효(文孝)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내용이 방영되었었다. 당시로서는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보살핌을 받는 어린이일지라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만일 그 시절에 백신이 개발되었다면, 그래서 정조의 뒤를 이어 문효세자가 왕으로 등극했다면 아마 우리 역사가 한참 바뀌어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흔히 백신의 개발은 현대의학이 이뤄낸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일컫는다. 혹자는 '현대의학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예방접종은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해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백신의 도입과 1980년대 정기예방접종의 시행으로 많은 전염병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방 가능한 전염병이 근절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예방접종대상전염병

95%이상의 예방접종률만 유지하면 예방접종대상전염병(VPD; Vaccine Preventable Disease)을 퇴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매년 수만 명의 어린이가 전염병에 감염되고 있다('07년 신고기준 25,099명). 이는 백신접종 행위가 질병의 발병 이전 예방적인 조치로 실행됨에 따라 접종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 설득과 정보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방접종이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며 국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비용-편익적인 의료행위일지라도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일부 예방접종은 추가 접종이 중요한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낮은 추가접종률로 이어져 여전히 대상전염병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생애 첫 보건의료 서비스 예방접종 바로알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06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2006.9월 6개광역시 999명 설문).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관련 기본상식을 물어본 결과 평균 4.9점(9점 만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현명한 선택 78.4%, 아이에게 도움 80.7%)되어, 대부분의 보호자가 자녀의 전염병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접종 실시의 장애요인으로는 '백신의 안전성(걱정됨 50.4%)'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주된 정보습득 채널은 '아기수첩, 병원 의사, 가족 등'이라고 응답해 주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나 공익 캠페인 등을 통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영
예방접종관리팀
ko416@cdc.go.kr

❖ 효과적인 예방접종 홍보방안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주로 영유아이며, 이 시기는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정보제공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기이다. 접종률 증진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보호자, 피접종자 등)의 사회 · 심리학적 특성을 이해한 홍보기획과 다양한 매체활용 그리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현재 실시 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홍보사업이다.

【예방접종 포털사이트 운영】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정보와 자녀 예방접종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자녀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을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는 메뉴를 운영해 보호자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건강 캠페인 전개】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예방접종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건강축제 등을 직접 찾아가 전문상담과 홍보물 제공 그리고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인형극 공연(튼튼이의 모험)을 실시하고 있다(2008년 53회 개최예정).

【홍보매체 다양화】

인쇄 홍보물 배포와 같은 일방향적 정보 전달로는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환기와 충분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사진-UCC-수기 공모전(07년도 1회)"과 같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행사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는 한편, "도망간 인플루엔자'라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다양한 매체(TV, 케이블, 지하철 등)에 동시에 진행해 단기간에 해당질병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수칙을 확산시키는 집중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재미와 함께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EE; Entertainment Education) 방송국(KBS)과 연계한 미디어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08년 5월, 해피투게더 '도전 암기송' 참여).

【교육 · 홍보 콘텐츠 개발】

올바른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접종대상자는 물론 보호자, 교사, 언론 등 다양한 정보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 홍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와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 예방접종정보를 동영상 CD로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과 학교에 배포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내용을 플래시 만화형식으로 제작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염병정보와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다국어(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 동영상과 책자로 제작해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는 접종대상자의 궁금증에 바른 정보로 신속히 화답하고 예방접종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감시시스템 및 국가 피해보상제도 강화)과 함께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현장 캠페인 실시 등으로 정보공유와 지식격차 해소에 노력해 갈 것이다.

칭찬은 우리도 춤추게 한다.

양은주
바이오과학정보팀
xmltest@empal.com

빨강머리 앤을 닮은 도서도우미 오진희 - 연구지원팀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 '전 국민 책 한권 쓰기 운동'(대한출판문화협회 · 조선일보),
'책 읽는 서울 독서 캠페인'(서울문화재단),
'아침독서 10분 운동'(전국 시 · 도 교육청),
서영숙(사회복지학) 숙명여대 교수가 이끄는 'TV 안 보기 시민모임' 등 전 국민 독서생활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에 발맞춰 요즘은 독서전용 커피점인 북까페(book cafe)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는 동네 병원과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도 별도의 독서전용공간을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독서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번 호 직원 칭찬에서는 지난 4월,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동 2층에서 동건물 1층으로 도서실 이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소장 도서 약 25,000권을 정리하느라 수고하셨던, 직원들의 독서문화 진작과 독서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구지원팀의 송경숙 사서서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오진희 씨(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2번째)를 소개한다.

새로 깔끔히 단장된 도서실 분위기에 서툰 나머지, 내가 찾으려는 책이 눈에 안 띌 때면, 매번 귀찮은 내색 않고 함박웃음을 띄며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도서를 찾아주는 친절한 오진희 씨를 볼 때마다, 나는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일본 닛폰애니메이션 사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빨강머리 앤(赤毛のアン)》에 등장하는 주인공 앤의 캐릭터 이미지와 주제곡 노랫말이 떠오르곤 한다.

주근깨 빼빼마른 빨강머리 앤,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머리 앤...

작가 지망생이자 시낭송을 유난히 좋아하던 문학소녀 빨강머리 앤을 닮은 오진희 씨의 또 다른 면모는 그녀가 읽은 뮈리엘 바르베리(프랑스 소설가)의 장편소설 '고슴도치의 우아함'에 대한 짤막한 도서 감상 글(보건복지가족부 포털시스템 유니모(UniMOHW) '추천도서'메뉴 참조. 글 등록일: 2008. 5. 19.)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오진희 씨가 나와 같은 팀의 동료가 아니라서 그녀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는 못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한국 속담처럼, 상냥하고 친절한 오진희 씨에 대한 내 주관적인 칭찬 글이 그녀를 접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느낌이길 바란다.

빨강머리 앤을 닮은 그녀가 누구지? 하며, 이번 직원칭찬을 계기로 도서실을 방문하게 될 직원들을 대하느라 더 바빠질 오진희 씨에게 화이팅을 보내고 싶다.

본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 이외 오진희 씨에 대해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개인 e-mail(insadelove@mohw.go.kr)로 편지를 띄우시거나 도서실을 자주 방문하시어 책을 사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지금...

김지영
총무혁신팀
esswa@hanmail.net

보건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

❖ 당신이 보건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신다면...

신종 전염병의 발생,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질병 없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요즈음, 우리본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질병 연구 및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보건연구관 5명, 보건연구사 5명, 연구원 22명을 새 식구로 맞이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직원들은 평균 5:1의 높은 경쟁률과 엄격한 시험과정을 거쳐 통과하였으며, 이들 새내기 연구 인력들은 전염병관리, 생명의학 및 유전체 연구 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서,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적 지식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발표하는 등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행, 광우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책적 니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질병관리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능한 보건연구 인력의 확보와 양성은 우리본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보건분야의 예방 및 관리, 진단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국민들이 질병으로 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양질의 건강 및 질병예방 정보를 만들어 제공할 것이다.

우리본부는 이들 새내기가 근거중심의 조사 · 감시 · 연구 수행을 통해 보건 ·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전체 및 생명산업, 의과학 연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인 질병 연구 및 관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8년 5월 신규채용직원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구관	에이즈·결핵관리팀	조은희
	예방접종관리팀	이연경
	형질연구팀	김봉조
	뇌질환팀	김영열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이광준
연구사	향후 배정 예정	신영림
		황희경
		박재경
		임중연
		박미현

김남희
전염병감시팀
nncnh@hanmail.net

주요행사

❖ 문화와 교육이 숨쉬는 「2008년 심뇌혈관질환 교육 연극」 전국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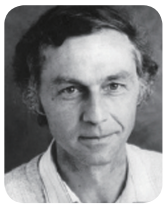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08년 심뇌혈관질환 교육 연극」 전국투어를 실시한다.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연을 하며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전남 장성군 보건의료원, 경남 하동군 · 마산시 보건소, 경기 여주시보건소, 충남 옥천군 보건소, 인천 계양구 보건소, 대구광역시, 경기 양평군보건소, 충남 아산시보건소, 대구시 고혈압 ·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연을 한다.

이 공연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예방관리 메시지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기대한다.

❖ 노벨상 수상 과학자 "Dr.Robert huber" 초청 강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에서는 2008년 6월 9일 오전 10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로버트 후버 박사(1988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을 모시고 "Beauty and usefulness of the building blocks of life : The architecture of proteins"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의 시간을 마련한다. 로버트 후버 박사는 빛에너지와 전자전달에 관여하는 세포내 분자단백질의 3차구조를 X-ray crystallography를 이용하여 밝힘으로 198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후버박사는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의 단백질 구조 및 구성의 다양성, 단백질의 특성에 따른 생물학적 · 의학적 생체시스템에서의 역할, 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단백질에 대한 특이 결합물질을 디자인 또는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용 의약품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전략 등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자로서의 삶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연구 경쟁력 강화 및 연구에 대한 열정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 2008년도 인플루엔자 지역간담회 개최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감염학회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감시 참여 의료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강화 세미나'를 실시해 왔다. 2008년에는 인플루엔자 세미나를 '지역간담회' 형태로 개선하여 개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감시체계 정보 공유에 힘쓰고자 한다. 지역간담회는 2008년 5월 31일(토)~7월 12일(토)까지 16개 시 · 도에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장(임상 · 실험실), 보건환경연구원, 시 · 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 11회에 걸쳐 진행 된다.

❖ 2008년 제3차 손상정책포럼 개최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6월 2일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07년 제 1,2차에 이은 '2008년 제 3차 손상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안효환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의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학교안전 영역의 손상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하여, 2부에서는 주거안전영역의 손상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06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6월(통권 제7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